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ly 2024 Issue | Vol. 50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 page 1
- 필리핀, 고소득 성장을 위해 제조업 일자리 확대 촉구받다 — page 2-3
- PPA, 화물량 증가했지만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보고 — page 4
- 8월 필리핀 달러 보유고 감소, BSP가 폐소 방어 — page 4-5
- NAlA 수수료 인상, 올해 시작될 수 있어 — page 5-6
- 실업자 수가 2.1백만 명으로 증가 — page 6-7
- 필리핀과 한국, 항공 서비스 연계 확대 — page 7-8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July 08, 2024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6월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아졌고 중앙은행의 2~4% 목표 범위 내에 머물렀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최고 관리자가 말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예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라고 BSP 총재 엘리 레몰로나 주니어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선언할 때는 아직 아닙니다.”

그의 발언은 6월 인플레이션이 5월의 3.9%에서 4개월 만에 최저치인 3.7%로 둔화된 후 나온 것으로, 이는 “약간 기대보다 나은” 결과였다.

레몰로나 총재는 BSP 통화위원회가 8월 회의에서 다음 조치를 고려하기 전에 7월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기타 데이터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여 연간 2~4% 목표를 초과할 경우, 통화위원회는 여전히 8월에 정책 완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Customers visit the Paco Market in Manila to check on the goods that are put up for sale on April 6, 2024.

STAR / Ryan Baldemor

“우리는 이미 기저 효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7월에 (인플레이션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초과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좋은 것입니다.”

7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8월 6일에 공개됩니다. 이는 8월 15일 올해 다섯 번째 정책 검토에서 정책 금리를 유지할지 인하할지를 결정할 때 통화위원회의 분석에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편, BSP 총재는 올해 총 50bp(기준금리 0.50%)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75bp(기준금리 0.75%)는 강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경제에 대해 “공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데이터는 8월 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BSP는 6차례 연속 회의에서 금리를 6.5%로 유지해왔으며, 이는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통화위원회가 차입 비용을 450bp 인상한 후의 일입니다.

BPI의 수석 경제학자 준 네리는 논평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개선되면서 BSP가 8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8월의 통화 정책 완화는 미국과 필리핀 간의 금리 차이가 더 좁아지면서 폐소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환율에서 인플레이션으로의 전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인플레이션 목표가 다시 위협받지 않는 한 우려되지 않습니다,”라고 네리는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절하로 인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현재의 경상수지 적자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해 6.5%에서 6%로 두 번의 금리 인하만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한편, 낮은 인플레이션은 BSP에게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여지를 줍니다.

“수년에 걸쳐 BSP는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을 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시장 기반 통화 도구를 정교하게 다듬어 왔습니다,”라고 네리는 말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7/08/2368472/still-too-early-declare-victory-against-inflation>

필리핀, 고소득 성장을 위해 제조업 일자리 확대 촉구받다

July 09, 2024 | Kyle Aristophere T. Atienza | BusinessWorld



The Philippine economy is likely to grow by 6-7% this year. — PHILIPPINE STAR/BALDEMOR

경제학자들은 필리핀 제조업 부문의 고용 비중 감소를 지적하며, 이는 고소득 지위를 달성하고 빈곤율을 한 자릿수로 빠르게 낮추는 등 다른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이라고 말했다.

월요일에 발표된 De La Salle University (DLSU) 경제학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의 필리핀 개발 계획 하의 대부분의 목표는 예상보다 늦게 달성될 것이며,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제조업이 가치 사슬을 오를 수 있도록 도운 산업 정책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필리핀 노동자가 “생산성이 매우 낮은”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의 고용 비중은 8%에 불과하고 2030년까지 7%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역사적으로 고소득 지위를 달성한 국가들은 제조업 고용 비중이 약 20-25%, 때로는 그 이상을 차지했습니다.”라고 DLSU의 경제학 교수 마리엘 모니카 사울라가 마카티 시티에서 열린 보고서 발표에서 말했다. “우리의 현재 제조업 고용 비중은 겨우 8%입니다.”

필리핀이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계화를 통해 농업 부문에서 노동자를 빼내고 제조업 기반의 고용 비중을 크게 늘림으로써 경제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DLSU의 안젤로 킹 경제 및 경영 연구소 소장인 제수스 펠리페는 말했다.

“우리는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고, 복잡한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며, 높은 조직 역량과 높은 생산성을 가진 기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행사에서 말했다.

펠리페 씨는 해외 취업을 위해 떠나는 필리핀인의 수가 줄어든다고 있다는 현상이 현지 임금 상승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제조업 기반을 확장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필리핀 노동자(OFW)의 수는 2023년 197만 명에서 2025년 191만 명으로 더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의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라를 떠나는 인센티브가 감소할 것입니다.”라고 펠리페 씨는 말했다.

농업 부문의 고용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울라 씨는 “생산성이 낮고” “임금이 낮은” 건설 및 운송 및 보관 부문의 비중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현지에 제조업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우리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항상 제조업 부문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해왔습니다.”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필리핀의 성장 고민에 해결책이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 농업 부문에서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경제 확장이 예상보다 느릴 경우, 내년에 상층 중간 소득 지위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목표 미달

DLSU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경제는 올해 정부의 6-7% 목표보다 낮은 5.5-5.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 개발 계획(PDP) 2023-2028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연간 성장 목표는 2028년까지 6.5-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DLSU 보고서는 GDP 성장률이 2028년까지 “목표 미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2029년까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6,044-6,571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8년이 아닌 2029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은행의 최신 소득 분류 데이터에 따르면, 필리핀은 2023년에 4,230달러의 국민총소득으로 하위 중간 소득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필리핀이 상층 중간 소득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1인당 GNI가 4,516달러에서 14,005달러가 필요합니다. [Cont. page 3]

필리핀, 고소득 성장을 위해 제조업 일자리 확대 촉구받다*[Cont. from page 2]*

사울러 씨는 필리핀이 올해 안에 상층 중간 소득 지위에 도달할 수 있지만, 실제 GDP 성장률은 PDP 2023-2028 목표율 아래로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발을 가속화하려면 경제 구조가 산업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 동북아시아 이웃국들의 산업화 경험을 반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펠리페 씨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창출하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며 고기술 직종을 만들어내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산층 필리핀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펠리페 씨는 필리핀 노동자의 80%가 월 최대 P15,000을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노동자 중 15%만이 P15,000를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생산 측면과 고용 측면에서의 구조적 경제 분포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필리핀 경제의 제조업 섹터가 지난해에 GDP의 18%를 차지했지만, 고용 비중은 단 7.3%에 불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펠리페 씨는 산업화를 추구해온 아시아 국가들이 국민총소득(GNI) 1인당에서 필리핀을 앞지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필리핀의 국민총소득(GNI) 1인당은 여전히 4,000달러로, 이는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이웃들은 체계적으로, 자동으로 우리를 따라잡고 우리를 앞서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을 예로 들어 1990년대에 필리핀의 GNI 1인당이 약 8배 낮았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2008년이나 2009년에 필리핀을 앞서갔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으며, 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필리핀보다 항상 부유했습니다.”

“불필요한”

동시에, DLSU 보고서는 필리핀이 국민총생산(GDP) 대비 3%의 적자 비율 목표를 2031년까지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2032년까지 48-53%의 국채 대비 GDP 비율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스페인 마닐라 경제 및 무역 사무소 소장인 페드로 파스쿨은 현재 저성장의 표식이 난 상황에서 마르코스 행정부의 재정 합병 계획은 “불필요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더 큰 예산 적자를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스쿨 씨는 가계 소비가 억제되고 있으며, 이는 레저를 목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필리핀인의 수가 감소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실질 임금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23년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까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주로 쌀 가격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경제적 문제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파스쿨 씨는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쌀 의존도를 줄이거나 대안을 찾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쌀 인플레이션은 6월에 한 달 전 23%에서 22.5%로 연속 두 번째로 완화되었습니다.

“과도한 디스인플레이션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DLSU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율은 2028년이 아닌 2035년에야 8.8-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은 2028년까지 목표 범위인 4-5% 내에서 안정될 것입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7/09/606810/phl-told-to-boost-manufacturing-jobs-to-achieve-high-income-growth/>

PPA, 화물량 증가했지만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보고

July 08, 2024 | Lorenz S. Marasigan | BusinessMirror

필리핀 항만청(PPA)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화물과 컨테이너 물동량은 혼합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BusinessMirror
A broader look at today's business

기관의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총 화물 처리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57.86백만 미터톤(MMT)에서 2024년 1분기에 59.31백만 미터톤(MMT)으로 2.5% 증가했습니다.

국내 화물은 25.55백만 미터톤으로 지난해 24.37백만 미터톤에서 4.8% 증가했으며, 외국 화물 처리량은 33.76백만 미터톤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국내 화물 처리량의 증가는 활발한 국내 경제 활동과 섬 간 무역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외국 화물의 소폭 증가는 다양한 글로벌 무역 역학 및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PPA 제이 산티아고 총괄 매니저는 비즈니스미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화물 처리량의 증가와 달리, 컨테이너 교통량은 감소했습니다. 2024년 1분기 총 컨테이너 교통량은 1.79백만 TEU(20피트 컨테이너 단위)로, 2023년 1분기의 1.83백만 TEU에서 2.17% 감소했습니다.

국내 및 외국 컨테이너 교통량 모두 감소했으며, 국내 TEU는 637,985에서 628,829로 감소했고, 외국 TEU는 1.19백만에서 1.16백만으로 감소했습니다.

“항만 운영 및 효율성 개선은 더 많은 화물 처리를 가능하게 했지만, 컨테이너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은 다릅니다. 국내 및 외국 컨테이너 교통량의 감소는 혼잡, 지연 또는 항로 변화와 같은 공급망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라고 산티아고는 설명했습니다.

Bluefocus Infrastructure Advisors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혼합된 결과는 필리핀의 해상 운송이 동남아시아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고된 상황에서도 기록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수입 및 국내 컨테이너에 대한 물류 비용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는 해상 운송 비용과 세관 수수료가 필리핀의 수입 및 국내 컨테이너 물류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구는 세관 통관 절차와 관련된 수수료가 총 물류 비용의 35%에서 6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상 운송은 선박 운임 및 할증료를 포함하여 추가로 2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트럭 운송 및 창고 비용을 포함한 내륙 물류는 총 물류 비용의 10%에서 25%를 차지합니다. 목적지의 항만 및 터미널 수수료는 주로 터미널 처리 요금으로 인해 5%에서 10%만 기여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는 필리핀에서 수입된 컨테이너의 평균 물류 비용이 \$5,300 또는 약 P311,372로, 재고 가치의 1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발견했습니다.

필리핀은 군도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에 해상 운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7/08/ppa-reports-more-cargo-but-lower-container-volumes/](https://businessmirror.com.ph/2024/07/08/ppa-reports-more-cargo-but-lower-container-volumes/)

6월 필리핀 달러 보유고 감소, BSP가 폐소 방어

하지만 1,047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은 국가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

July 08, 2024 | Ian Nicolas P. Cigaral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필리핀의 달러 보유액은 6월에 약간 감소했으며, 이는 폐소의 변동성을 진정시키기 위해 방콕 센트럴 बैं크(BSP)가 외환 개입을 한 결과입니다.

BSP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필리핀의 총 국제포화보유액(GIR)은 6월에 1,047억 달러로, 5월에 기록된 1,050억 2,000만 달러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순 국제포화보유액 — 즉 GIR과 짧은 기간 외채 및 국제통화기금(IMF) 대출과 같은 부채와의 차액 — 은 6월에 290백만 달러 감소하여 1,046억 9,0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Cont. page 5]

6월 필리핀 달러 보유고 감소, BSP가 페소 방어

하지만 1,047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은 국가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
[Cont. from page 4]

용어의 의미대로, GIR은 국가가 외부 충격에 대비하는 버퍼 역할을 합니다. BSP의 보유 자산은 외국 투자, 금, 외환, IMF의 예비 자산 및 특별 인출권(SDR)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GIR은 국가의 상품 수입 및 서비스 및 1차 소득 지급을 적어도 3개월간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페소 급락 T

보유액이 국가의 공공 및 사설 부문에서 발생한 외채 결제를 즉시 12개월 이내에 최소 100% 보장하는 경우도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중앙은행은 6월 감소를 정부의 옛 외부부채 상황과 금값의 글로벌 가격 하락이 BSP 자체 보유에 영향을 미친 데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최대 월대비 하락을 기록한 GIR 구성 요소는 외환 보유액(-17.8%)과 금 보유액(-1.1%)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레몰로나 주 BSP 총재는 "일부"의 보유액 감소도 중앙은행이 페소를 지탱하기 위한 노력에 기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페소가 매우 급격하게 약세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페소에 대한 목표 수준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급격한 약세를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레몰로나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6월 말 통화 정책 회의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레몰로나가 매우 비호감적인 톤을 내며 8월에 금리 인하의 명확한 힌트를 제공했기 때문에 페소가 역대 최저치인 59에 가까이 약세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BSP의 강력한 개입 덕분에 페소의 급락이 방지되었으며, 페소는 이전 몇 달의 손실 일부를 회복했습니다. 중앙은행은 보유 달러를 판매함으로써 급격한 통화 약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6월 말 GIR 수준은 2년 만에 최고치 중 하나로, BSP는 페소에 대한 투기적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충분한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버퍼 자금은 또한 국가의 수입 필요를 7.7개월 동안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며, 원래 만기를 기준으로 국가의 단기 외부 부채를 6.1배, 잔여 만기를 기준으로 3.8배 지원할 수 있습니다.

BSP는 올해 말 GIR이 편안한 1,04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67579/june-ph-dollar-reserves-dip-as-bsp-defends-peso>

NAIA 수수료 인상, 올해 시작될 수 있어

July 09, 2024 | Elijah Felice Rosales | The Philippine Star

필리핀 마닐라 —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의 서비스 수수료가 올해부터 조정될 예정이며,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은 공항에서 운영하는 항공사들일 것으로 보인다.

교통부 장관 하임 바우티스타는 NAIA 요금이 2024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공항의 운영 및 유지관리가 민간 부문에 이양된 직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바우티스타는 착륙 및 이착륙 수수료가 올해 인상될 수 있으며, 승객 서비스 요금(PSC)은 2025년에 증액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NAIA 요금 변동 사항은 공항의 규제기관인 마닐라 국제공항 관리청(MIAA)이 준비한 행정명령(AO)을 통해 공식화될 예정이다. 이 AO는 교통부를 주재로 한 일곱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

더 스타는 AO 초안을 입수했으며, 이에 따르면 외국 항공편의 최대 이착륙 중량이 50,000 킬로그램인 항공기의 착륙 및 이착륙 수수료가 최소 794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AO가 적용된다면, 민간 부문 운영 20년차에는 이 요금이 1,268.18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Cont. page 6]



Jaime Bautista

STAR / File

NAIA 수수료 인상, 올해 시작될 수 있어

[Cont. from page 5]

한편, 국내 항공편의 착륙 및 이착륙 수수료는 민간 운영 첫 해에 최소 15,417페소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AO는 20년차에 이 요금을 24,624.03페소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 처리 수수료는 민간 관리 첫 해에 220,000페소로 설정되며, 이후 5년마다 조정되어 20년차에는 351,384페소에 이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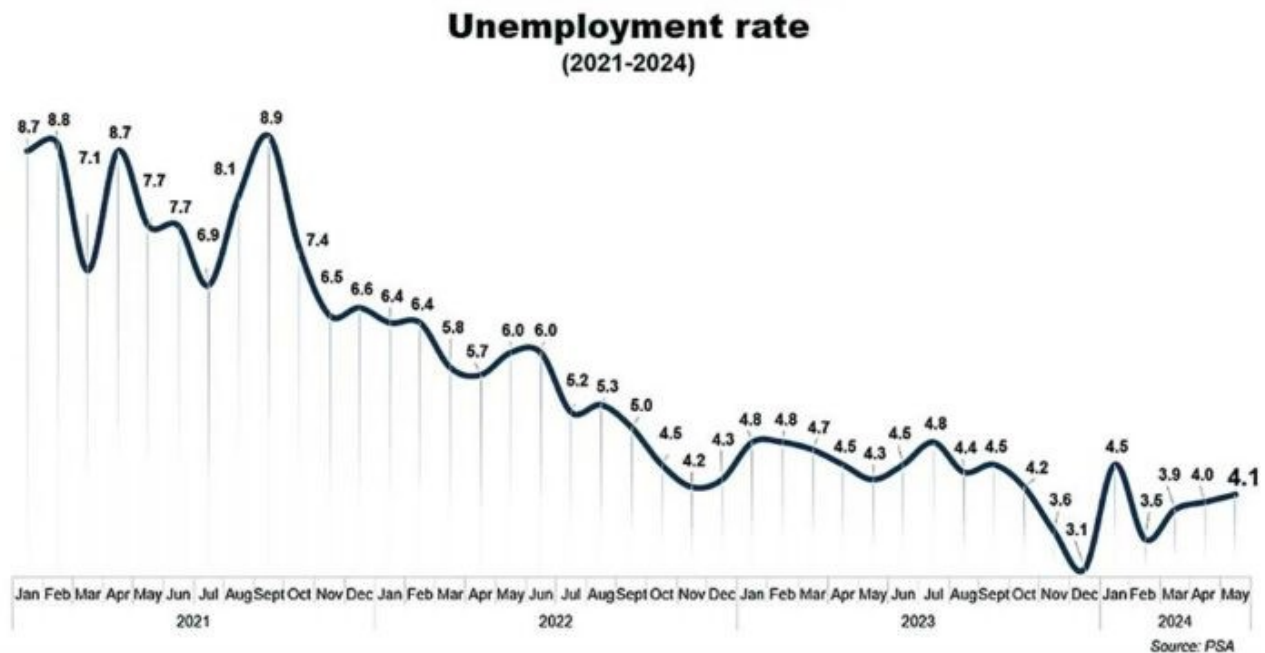
국제 여객의 승객 서비스 요금(PSC)은 현재 550페소에서 950페소로 인상될 예정이며, 국내 여객의 경우 현재 200페소에서 390페소로 인상될 것입니다.

바우티스타 장관은 산 미구엘 그룹이 주도하는 뉴 NAIA 인프라 코퍼레이션이 NAIA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할 자본을 충당하기 위해 이러한 요금 인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NAIA 관리를 위한 1706억 페소의 입찰을 획득하였으며, 9월부터 공항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7/09/2368678/hike-naia-fees-may-start-year>

실업자 수가 2.11백만 명으로 증가

July 09, 2024 | Angela Celis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5월에 나라의 실업률이 소폭 상승했으나, 같은 달의 자반고조율은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최근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024년 5월 실업률은 4%에서 4.1%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2023년 5월에 기록된 4.3%에서 개선된 수치이다.

명목으로는, 2024년 5월 실업자는 약 2.11백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23년 5월의 2.17백만 명보다 적지만, 2024년 4월의 2.04백만 명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한편, 자반고조율은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2024년 5월에는 11.7%에서 9.9%로 개선되었다. 2024년 4월에는 14.6%였다.

규모 측면에서, 4887만 명의 고용 인구 중 2024년 5월에는 현재 직장에서 추가 근로 시간을 원하거나 추가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은 482만 2000명이었다. [Cont. page 7]

실업자 수가 2.11백만 명으로 증가

[Cont. from page 6]

PSA는 또한, 2024년 5월 필리핀의 고용률이 95.9%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23년 5월의 95.7%보다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2024년 4월 고용률은 96%였습니다.

2024년 5월 고용 인구는 4,887만 명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2023년 5월 추정 4,826만 명 및 2024년 4월 4,836만 명보다 높았습니다.

노동 인구 참여율(LFPR)은 2024년 5월에 64.8%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23년 5월 추정 65.3%보다 낮았습니다. 2024년 4월 LFPR은 64.1%였습니다.

2024년 5월 보고된 LFPR은 15세 이상 필리핀 국민 총 인구 5,097만 명에 해당하며, 이들은 고용되었거나 실업 중인 사람들입니다.

국가 경제 발전 기획청(NEDA)은 발표에서 필리핀 정부가 투자를 촉진하고 노동 시장의 긍정적 흐름을 유지하며 필리핀 국민을 위한 고품질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해 주요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NEDA는 2024년 5월 전체 고용의 증가가 주로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확장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 및 제조업 하위 부문도 각각 74만 5천 명과 34만 7천 명의 일자리를 크게 증가시키며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은 정부의 여러 주요 프로그램 및 사업의 실행에 기인한다고 NEDA가 말했습니다.

"NEDA 국가 경제 발전 기획청장 아르세니오 바리사칸은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추진과 필리핀 국민을 위한 Pambansang Pabahay Para sa Pilipino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건설 노동자와 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부문에서의 일자리 기회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농업 부문은 엘니뇨와 태풍 아곤퐁의 영향으로 160만 명의 일자리를 잃었으며, 서해 필리핀해의 지정학적 긴장이 그 지역의 어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리사칸은 재난 대비 준비와 재해 및 기후 변화로 영향받은 농업 종사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후 재난 시기 동안 기상 모니터링 및 예측 능력을 개선하고, 재해 동안 생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일자리 기회를 더 창출하기 위해 투자를 촉진하고 주요 기술적 및 혁신적 개혁을 실행해야 할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라고 바리사칸은 말했습니다.

국가의 주요 경제 계획자는 또한 디지털 기술이 공공 부문의 일자리 중개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정책 기획 및 프로그래밍에서 기술 예측을 향상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강조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number-of-unemployed-rises-to-2-11m/](https://malaya.com.ph/news_business/number-of-unemployed-rises-to-2-11m/)

필리핀과 한국, 항공 서비스 연계 확대

July 09, 2024 | Lorenz S. Marasigan | BusinessMirror



필리핀과 한국은 국제 항공 서비스 협정을 확대하여 두 나라 간 주간 좌석을 더 추가하고, 항공 여행을 더욱 평등하게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교통부(DOTr)는 월요일에 필리핀 마닐라와 한국 서울 간에 7월 4일에 새로운 항공 서비스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은 용량 권리를 확대하고, 양국의 부종공항 간의 항공 교통을 자유화합니다.

새로운 항공 서비스 협정에 따라, 마닐라에서 인천행 주간 좌석 용량이 30,000으로 증가했으며, 한국 다른 지역으로의 마닐라에서의 항공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Cont. page 8]

필리핀과 한국, 항공 서비스 연계 확대*[Cont. from page 7]*

또한, 마닐라 외 지역에서 한국 어디로든 항공편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관광 및 비즈니스 여행을 촉진하고, 성장하는 수요와 긍정적인 후포스트 코로나 회복을 반영한다고 교통부가 설명했습니다.

이번 새로운 협정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항공 서비스 협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각국의 지정 항공사는 마닐라에서 한국의 다양한 지점으로 주간 최대 20,000석씩 운항이 제한되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의 최고의 관광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필리핀 관광부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도착자 수는 이미 682,362명에 이릅니다.

"용량 증가는 항공사들이 두 나라의 수도 사이에서 승객 운송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 시장에서 느껴질 것입니다,"라고 교통부는 말했습니다.

필리핀 대표단은 또한, 필리핀의 항공사를 국내 주요 영업소와 법인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수정된 공공서비스 법에 따라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양측 대표단은 향후 협의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도 제3국 코드 공유 협정을 허용하는 제안을 하였으며, 이는 추가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Image credits: [Dreamstime.com](https://www.dreamstime.com/)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7/09/phl-south-korea-expand-air-services-ties/>

Contact Us**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63.3MW Calatagan Solar Farm